

2025 해외금융협력협의회 연차보고서

Council on International
Financial Cooperation
2025 Annual Report

PART 1. 2025 연차보고서 발간사	
발간사	4
PART 2. 회원기관 동정	
회원기관 동정 기고	6
PART 3. 해외금융협력협의회 소개	
설립배경	8
조직도	9
해외금융협력협의회 주요 연혁	10
해외금융협력협의회 발자취	12
PART 4. 2025 사업보고	
국제금융협력포럼	
01 제10회 국제금융협력포럼	16
현지 금융협력포럼	
02 한-아세안 금융협력포럼	18
03 한-몽 금융협력포럼	20
해외 금융관계자 초청연수	
04 해외공무원·금융관계자 초청연수	22
회원기관-협력국 공동연구	
05 ViPP(Visiting Professionals Program) 2기	24
06 ViPP(Visiting Professionals Program) 3기	26
지식공유세미나	
07 CIFC-LFF 지식공유세미나	27
해외금융협력협의회 연구용역	28
정보관리사업	30
CIFC 간행물 및 홍보자료 발간	31
정례회의 및 워크숍	32
회원기관 협력사업 지원	34

발간사

해외금융협력협의회는 국내 주요 공공 및 민간 금융기관, 금융협회가 합심하여 설립한 협의체로서, 글로벌 금융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도 우리 금융산업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해외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는 데 매진해 왔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금융산업 발전 과정에서 축적된 정책 경험과 전문성을 해외 협력국과 공유하는 한편 변화하는 금융 트렌드에 대응하는 협력 모델을 발굴함으로써 국제 금융협력의 외연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2025년 해금협은 전 세계 다양한 국가 및 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정책 교류, 공동 연구, 인적 교류 등 다층적인 협력사업을 수행하며 글로벌 금융협력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해금협 회원기관과 다수의 해외 파트너 기관 간 지속적인 협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축적된 결과이기도 합니다.

특히 지난 한 해는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 기술 확산,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 금융환경의 구조적 변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교류와 협력사업이 더욱 확대된 시기였습니다. 제10회 국제금융협력포럼을 비롯하여 한-아세안, 한-몽골 금융협력포럼 등 다양한 지역 협력 사업을 통해 디지털 금융, 자본시장 발전, 금융안정 등 주요 정책 이슈에 대한 논의를 심화하고 금융당국과 금융기관 간 협력 기반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해외공무원·금융관계자 초청연수와 Visiting Professionals Program(ViPP) 등 인적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 금융정책과 제도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국 금융당국과의 공동연구 및 정책 협력을 확대하였습니다. 특히 3기에 접어든 ViPP는 협력국과 공동연구를 통해 실질적인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는 프로그램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연구 성과의 체계적 축적을 통해 협력의 깊이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또한 룩셈부르크 금융진흥청(LFF)과의 지식공유세미나를 비롯한 다양한 협력사업을 통해 유럽 금융시장과의 교류를 확대하고 핀테크와 데이터 기반 금융 등 신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였습니다. 더불어 정책금융 패키지 수출, 중유럽 금융시장 조사 등 연구영역을 통해 금융협력의 전략적 방향을 제시하고 회원기관의 해외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해외금융협력협의회는 앞으로도 급변하는 글로벌 금융환경 속에서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중추적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디지털 금융, 지속가능금융 등 새로운 금융 패러다임에 대응하여 협력국과의 정책 교류를 심화하고 다양한 협력사업을 통해 미래 금융의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K-금융의 국제적 위상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회원기관 여러분께서도 해외금융협력협의회를 통해 글로벌 사업 기회를 확대하고 보다 적극적인 해외진출을 추진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4월
해외금융협력협의회 의장 이항용

회원기관 동정 기고

해외금융협력협회의 연차보고서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해외금융협력협회(CIFC, 이하 "해금협")의 2025년도 연차보고서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금융시장의 국가 간 경계가 사라져가는 대전환의 시대에 해금협은 대한민국이 글로벌 무대에서 고유의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견고한 길잡이가 되어주었습니다. 그 치열했던 여정을 기록한 이번 해금협 연차보고서에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가 축적해온 글로벌 혁신의 기록을 담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공사는 2004년 출범 이후, 주택금융의 장기적·안정적 공급을 통해 국민의 주거 복지 향상과 금융시장 발전에 이바지해 왔습니다. 보금자리론 공급을 통해 국내 최대 규모의 MBS(주택저당증권)를 발행하여 채권시장의 양적·질적 성장을 주도함은 물론, 전세자금보증을 통한 서민 주거 사다리 마련, 주택연금을 활용한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 보장 등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금융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공사는 국내 성장모델을 토대로 국제 무대에서 아래의 세 가지 차원의 전략적 성취를 달성하며 글로벌 주택금융의 미래를 다진 의미있는 한 해를 보냈습니다.

첫째, 동서양을 관통하는 '글로벌 산·학·연 주택금융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통한 혁신을 추진했습니다. 공사는 기존 아시아 지역 주택금융기관과의 협력을 넘어, 유럽시장에서의 조달역량 강화를 위하여 EFBS와 EMF-ECBC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미국 주택금융 정책의 핵심인 HUD/Ginnie Mae와 부동산 연구기관인 Penn IUR과 전략적 파트너십도 구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지리적 경계를 허물고 산업·대학계·정부 등 다양한 주택금융 참여자를 연결하여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국내 주택금융 정책의 성공을 토대로 'K-주택금융 모델'의 글로벌 확산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공사는 말레이시아에 주택금융 자문관을 파견하여 정책 컨설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을 토대로 세계은행(World Bank) 및 아시아개발은행(ADB)과 함께 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한국형 주택금융사업 공유를 확대하기 위하여 협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에는 몽골의 주택금융 전문기관 설립을 지원하여 한국형 주택금융 시스템을 구축하는 프로젝트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택금융 관련 세계적인 석학 Dr. Bertrand Renaud과 Prof. Wachter 등을 초청하여 컨퍼런스 및 세미나를 개최하였고, 2026년에는 일본 및 홍콩의 주택금융기관과 공동으로 아시아 2차시장 모기지 협회(ASMMA) 회원국 등을 초청하여 국제컨퍼런스 개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셋째,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국내 최초 'Green Covered Bond'를 발행하여 ESG 금융의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하였습니다. 공사는 2019년 아시아 최초 소셜 커버드본드 발행을 시작으로 유로화 및 달러화 외에도 다변화된 통화와 정기 발행으로 한국물(Korea Paper)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국내 은행들이 해외에서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아시아 커버드본드 시장의 기준이 되는 벤치마크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유럽 시장에서 국내 최초 그린 커버드본드 발행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기존 서민 주택 실수요자 지원이라는 사회적 역할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택소노미(Taxonomy) 기준을 충족하는 친환경 주거복지라는 정책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음을 입증하여 한국이 녹색금융의 단순한 참가자를 넘어 선도자로 도약하고 있음을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공사가 일궈낸 이 모든 결실은 해금협과 회원기관 여러분의 지지와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앞으로도 서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더불어, K-주택금융의 위상이 세계 무대에서 끊임없이 도약할 수 있도록 혁신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해금협의 무궁한 발전과 회원사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026년 4월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김경환

설립배경

해외금융협력협의회는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국제 금융협력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협의체입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상호 연계가 확대되고 신흥국 금융시장과의 협력 기회가 증가함에 따라 국내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해외 금융협력 전략을 모색하고 정책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협력 체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2011년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공공 및 민간 금융기관 기관장들이 참여하는 협력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이를 통해 해외 금융협력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금융기관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협력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이후 금융협력 사업을 보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담 조직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2012년 한국금융연구원 내에 해외 금융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국을 설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준비 과정을 거쳐 2013년 2월 국내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협력 플랫폼인 해외금융협력협의회가 공식적으로 출범하였습니다. 동시에 협의회의 실무를 담당하는 조직으로서 한국금융연구원 내에 해외금융협력지원센터가 설립되어 국제 금융협력 사업과 정책 교류, 해외 네트워크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후 협의회는 운영 규정과 회원 체계를 정비하며 활동 기반을 확대해 왔으며, 다양한 금융협력 사업을 통해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 진출 지원과 금융협력 네트워크 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26년 현재 해외금융협력협의회는 총 24개의 공공·민간 금융기관 및 금융협회가 참여하는 협의체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직도



해외금융협력협의회의 주요 연혁



2015

- 5월 금융위원장 주재 금융회사 해외진출 현장간담회 개최
- 6월 금융세일즈외교 대상국 선정을 위한 국내 금융회사 해외진출 수요조사 실시
- 9월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주재 해외진출지원 간담회 개최
- 12월 「인도네시아 금융시장 심층조사」 발간



2016

- 3월 우즈베키스탄 정보기술통신발전부 산하 알로카뱅크 초청연수 개최
- 7월 미얀마 계획재무부 초청연수 개최
- 8월 태국 재무부, 중앙은행, 신용보증공사, 과학기술부 초청연수 개최
- 10월 이란 재정경제부, 증권위원회, 예탁결제원 초청연수 개최



2019

- 7월 디지털 공유경제 속 금융의 역할 세미나 개최
- 10월 보험산업의 변화와 미래 세미나 개최
- 12월 제6회 국제금융협력포럼 개최



2020

- 7월 CIFIC 브로슈어 발간
- 11월 코로나19 이후 보험산업의 신시장 확보 전략 세미나 개최
- 12월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금융환경 및 금융제도에 대한 심층 연구」 발간



2023

- 2월 제 7회 국제금융협력포럼 및 10주년 기념행사
- 6월 한-태국 금융협력포럼
- 9월 한-인도네시아 금융협력포럼
- 12월 제 8회 국제금융협력포럼



2024

- 6월 해외공무원·금융관계자 장기 초청연수
- 7월 한-영국 금융포럼
- 10월 Visiting Professionals Program(ViPP)
- 12월 제 9회 국제금융협력포럼



2013

- 2월 해외금융협력협의회의 제1차 브라운백미팅 개최
- 6월 우즈베키스탄 재무부 초청연수 개최
- 9월 해외금융협력협의회의 공식 홈페이지 개설
- 11월 2013년도 정기총회 개최



2017

- 7월 한-몽골 금융협력포럼 개최
- 9월 한-태국 금융협력포럼 개최
- 11월 제4회 한-영 민간 금융협력포럼 개최



2021

- 4월 CIFIC 2020년 연차보고서 발간
- 5월 한-인도네시아 금융협력세미나 개최
- 12월 CIFIC 뉴스레터 발간 및 홈페이지 개편



2025

- 4월 한-아세안 금융협력포럼
- 6월 한-몽골 금융협력포럼
- 9월 해외공무원·금융관계자 장기 초청연수
- 11월 CIFIC-LFF 지식공유세미나
- 12월 제 10회 국제금융협력포럼



2014

- 5월 금융위원장 주재 금융한류 확산을 위한 간담회 개최
- 5월 한-미얀마 ADB 금융협력포럼 개최
- 8월 태국 증권거래위원회 초청연수 개최
- 12월 제1회 국제금융협력포럼 개최



2018

- 7월 몽골 중앙은행 초청 공동연수 개최
- 8월 미얀마 기획재정부 초청 공동연수 개최
- 10월 라오스 재무부 및 투자계획부 초청 공동세미나 개최
- 12월 인도네시아 중앙예탁기관 대상 공동 초청연수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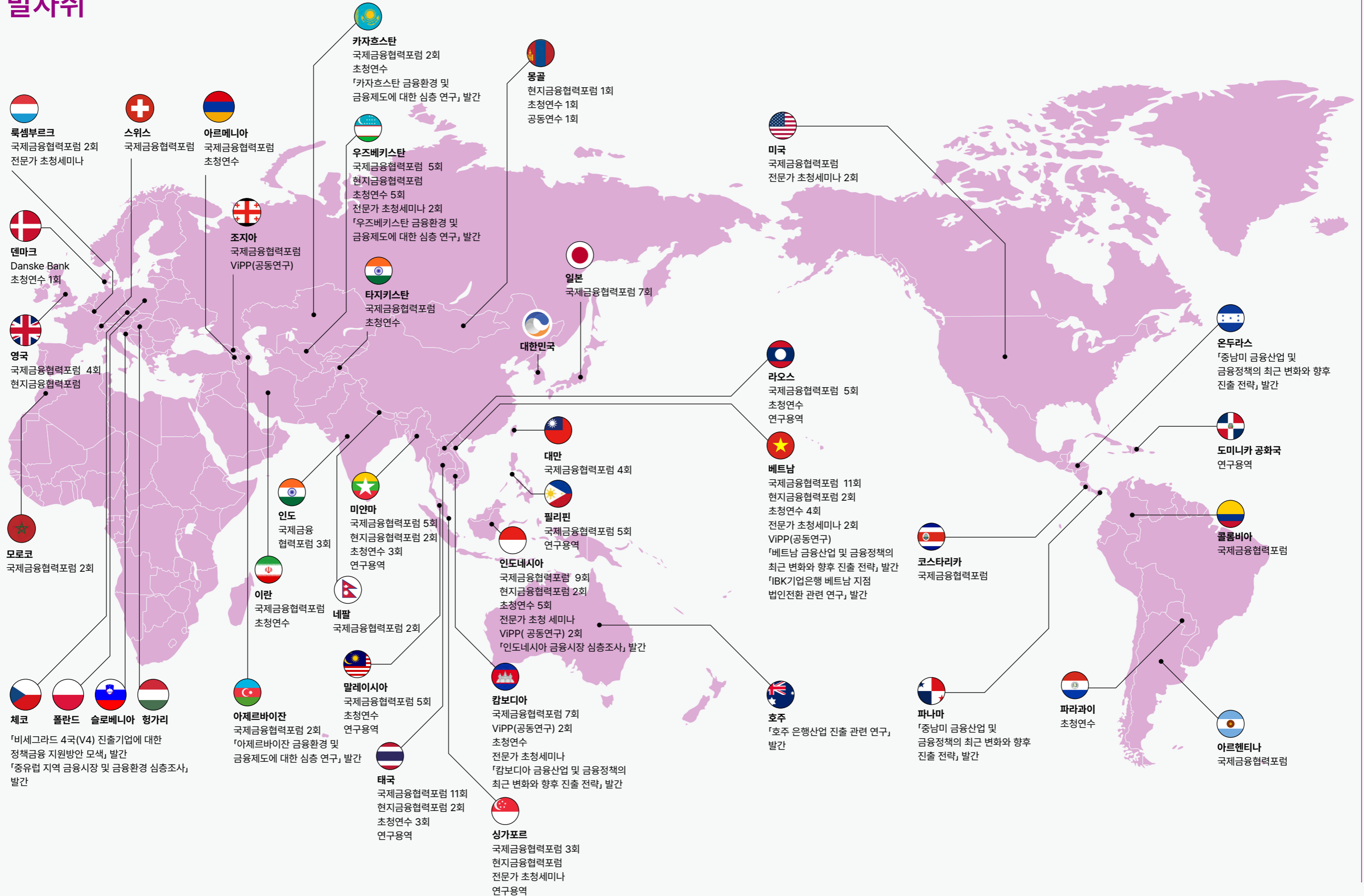


2022

- 6월 제8회 해외금융협력협의회의 워크숍 개최
- 9월 우즈베키스탄 공무원 초청연수 개최
- 10월 해금협 한-아세안 금융협력센터 공동세미나 개최

해외금융협력협의회 발자취

해외금융협력협의회 소개



해외금융협력협의회

2025 사업보고

해외금융협력협의회 연차보고서

국제금융협력포럼

01 제10회 국제금융협력포럼

현지 금융협력포럼

02 한-아세안 금융협력포럼

03 한-몽 금융협력포럼

해외 금융관계자 초청연수

04 해외공무원·금융관계자 초청연수

회원기관-협력국 공동연구

05 ViPP(Visiting Professionals Program) 2기

06 ViPP(Visiting Professionals Program) 3기

지식공유세미나

07 CIFC-LFF 지식공유세미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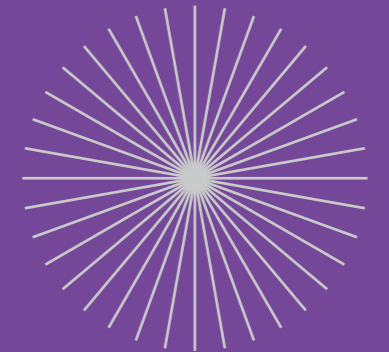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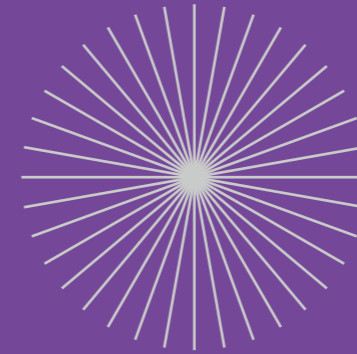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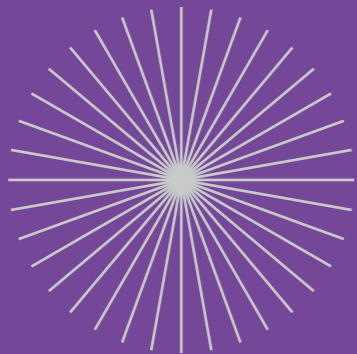
해외금융협력협의회 연구용역

정보관리사업

CIFC 간행물 및 홍보자료 발간

정례회의 및 워크숍

회원기관 협력사업 지원



01 제10회 국제금융협력포럼

해외금융협력협의회는 2025년 12월 8일 부산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제10회 국제금융협력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한 제9차 한·일 금융감독 정례회의와 연계하여 진행되었으며, 국내외 금융당국·금융기관·국제기구 관계자 205명이 참석한 역대 최대 규모 행사로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와 금융협력 방향을 논의하였다.



디지털 금융 전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금융협력 강화

올해 포럼은 「Frontier Finance: Reshaping Digital Transactions and Intelligence」를 주제로, AI와 디지털 전환이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규제 대응 방향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개최식에서는 해외금융협력협의회 이항용 의장이 개회사를 통해 디지털 금융 전환이 가속화되는 환경 속에서 각국의 정책 경험과 금융산업 혁신 사례를 공유하는 국제 협력의 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어 이덕원 금융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최근 글로벌 경제·금융 환경 변화 속에서 역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자본시장 육성,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 고령화 대응 등 한·일 양국이 공통적으로 직면한 과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융당국 간 협력과 정책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본 금융청(FSA) 이토 유타카 청장은 디지털 전환을 한·일 금융산업의 공동 성장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금융당

국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민간 중심의 금융 혁신을 적극 지원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금융감독원 이찬진 원장은 자본시장 제도 개선과 함께 디지털 금융 확산에 따른 금융소비자 보호 및 리스크 관리 등 새로운 감독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금융당국 간 협력과 정보 공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AI-데이터 기반 금융혁신 사례 공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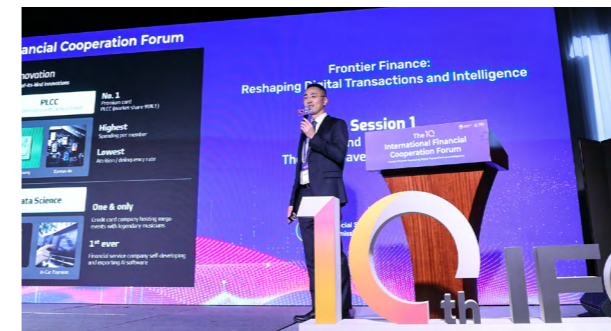
이번 포럼은 세 개의 주요 세션으로 구성되어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AI와 디지털화: 금융 실무의 새로운 변화(AI and Digitalization: The Next Wave of Financial Practices)'를 주제로 금융산업에서 인공지능과 데이터 기술이 실제 금융서비스와 업무 혁신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사례가 소개되었다. 한국 금융결제원은 금융 인프라 분야에서의 AI 기반 업무 혁신 사례를 공유하였으며, 사우디아라비아 중소기업 신용보증기관(Kafalah)은 데이터 기반 금융지원 모델을 소개하였다. 또한 현대카드는 AI 플랫폼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과 금융서비스 고도화 사례를 발표하며 디지털 기술이 금융서비스 혁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디지털 금융 시대 규제·감독 정책 논의

두 번째 세션에서는 '디지털 시대의 금융 규제(Regulatory Frontiers in a Digital Era)'를 주제로 금융위원회, 일본 금융청, 금융감독원 관계자가 참여하는 공동 세션이 진행되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 분야에서의 AI 활용 확대와 관련된 정책 방향을 소개하였고, 일본 금융청은 가상자산 시장과 디지털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규제 동향을 발표하였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권의 AI 활용에 따른 리스크 관리 및 감독 체계 구축 방안을 공유하며 디지털 금융 확산 속에서 금융 혁신과 금융 안정성을 조화롭게 달성하기 위한 정책적 과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금융혁신 촉진과 부산 금융허브 전략

마지막 세션에서는 '혁신을 촉진하는 성장 금융(Growth-enhancing Finance as a Catalyst for Innovation)'을 주제로 금융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과 지역 금융 허브 전략이 소개되었다. 부산국제금융진흥원과 부산시 관계자는 금융중심지로서 부산의 역할과 금융산업 발전 전략을 설명하고, 창업 및 투자 생태계와 연계한 글로벌 금융 협력 확대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금융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과 지역 금융 허브의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포럼 이후에는 참가자들이 참여하는 네트워킹 세션이 이어져 글로벌 금융 동향과 협력 방안을 공유하고, 향후 협력사업 발굴을 위한 교류의 시간이 마련되었다. 이번 포럼은 디지털 금융 전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공유하는 동시에 국내외 금융기관과 정책당국 간 협력 네트워크를 더욱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다.

02 한-아세안 금융협력포럼

해외금융협력협의회는 2025년 4월 11일 싱가포르 콘래드 센테니얼 호텔에서 한-아세안 금융협력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에는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싱가포르 통화청(MAS), 싱가포르 거래소(SGX), 인도네시아 거래소, 주아세안 대한민국 대표부, 한-아세안금융협력센터 등 역내 주요 금융기관과 정책기관 관계자 약 80명이 참석하여 금융환경 변화 속에서의 협력 방향을 논의하였다.



금융환경 변화 속 한국과 아세안 간 금융협력 확대와 역내 금융 네트워크 강화

이번 포럼은 "Innovation and Cooperation: Strengthening Financial Systems in a Changing World"를 주제로 개최되었으며, 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와 디지털 기술 발전, 인구 구조 변화 등 새로운 환경 속에서 금융시스템의 안정성과 포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방향과 역내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역내 금융시장의 상호 연계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확보와 자본시장 발전, 금융포용 확대 등 주요 정책 과제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해외금융협력협의회 이항용 의장이 개회사를 통해 한국과 아세안 이 교역과 투자 측면에서 긴밀한 경제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특히 아세안은 국내 금융기관들이 가장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는 핵심 금융협력 지역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양 지역이 역동성과 회복탄력성이라는 공통된 가치를 바탕으로 금융 협력을 확대하고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금융 생태계를 함께 구축해 나갈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이어 AMRO와 주아세안대한민국 대표부 관계자들은 역내 금융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국과 아세안 간 정책 교류 확대에 대한 기대를 표명하였다.



포럼에서는 경제·사회 구조 변화 속에서 금융이 수행해야 할 역할과 자본시장 발전 방향, 금융 포용 및 디지털 전환을 위한 협력 방안 등 다양한 주제가 논의되었다. 먼저 경제·사회적 변화에 대응하는 금융의 역할을 중심으로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 환경 변화가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성과 경제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 방안이 논의되었다. 특히 금융기관이 경제 구조 변화와 사회적 불균형 문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역할과 금융 혁신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또한 아세안+3 자본시장의 발전 방향을 주제로 한 논의에서는 역내 자본시장 인프라 발전과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협력 가능성이 조명되었다. 싱가포르 거래소 등 역내 금융기관은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 속에서 자본시장의 역할과 투자 흐름의 변화를 소개하였으며, 한국 측에서는 금융위기와 팬데믹 등 주요 위기 상황에서 정책금융기관과 금융 인프라 기관이 자본시장 안정에 기여한 경험을 공유하였다. 이러한 사례는 금융시장 안정성과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정책 대응 역량과 금융 인프라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로 논의되었다.

이어 금융포용과 디지털 전환을 주제로 한 논의에서는 채무조정 제도와 금융교육, 디지털 기반 금융서비스가 금융 접근성을 확대하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한국과 싱가포르의 채무관리 및 금융상담 사례가 공유되며, 맞춤형 채무조정 제도와 체계적인 금융교육 프로그램이 채무자의 재기와 금융시스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정책적 시사점이 제시되었다. 또한 디지털 금융과 핀테크 기술이 향후 역내 금융 생태계 발전과 금융포용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번 포럼은 한국과 아세안 금융기관 간 정책 경험과 금융 발전 사례를 공유하고, 역내 금융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아세안 금융시장과의 협력 가능성을 재확인하고, 국내 금융기관의 아세안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제도적 협력 기반을 확대하는 의미 있는 자리로 평가된다. 또한 금융포용, 자본시장 발전, 디지털 금융 혁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가능성을 확인함으로써 향후 한-아세안 금융협력의 방향을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03 한-몽 금융협력포럼

해외금융협력협의회는 2025년 6월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한-몽 금융협력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은 몽골 재무부 및 금융당국과 협력하여 개최된 행사로, 양국 금융당국과 정책금융기관, 금융 인프라 기관, 민간 금융기관 관계자 120여 명이 참석 참석하여 몽골 금융시장 발전과 양국 간 금융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였다.



몽골은 최근 경제 성장과 자원 개발 확대에 따라 금융시장 발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금융 인프라 구축과 자본시장 활성화, 금융 안정성 강화 등 다양한 정책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번 포럼은「Developing Financial Markets, Securing Stability: A Joint Path to a Resilient Future」를 주제로 개최되었으며, 한국의 금융 발전 경험과 금융 인프라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몽골 금융시장의 제도 개선과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포럼 개최식에서는 해외금융협력협의회 이항용 의장이 개회사를 통해 양국 간 금융 협력을 기반으로 금융 인프라 발전과 금융시장 안정성을 함께 강화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하였다. 이어 금융위원회 이윤수 증권선물위원회는 축사를 통해 한-몽 수교 35주년을 계기로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의 정책 경험 공유를 통해 양국 금융 파트너십이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하였다. 아울러 몽골 재무부와 금융당국 관계자들 역시 몽골 금융시장 발전을 위해 국제 협력과 정책 경험 공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양국 간 금융협력 확대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

이번 포럼은 자본시장 발전, 금융 안정성 강화, 디지털 금융 신을 중심으로 세 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었다.

자본시장 발전과 금융시장 구조 개선



첫 번째 세션에서 몽골 재무부는 최근 몽골 자본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시가총액 확대와 함께 금융시장 구조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제도 개혁이 추진되고 있음을 소개하였다. 특히 5대 시중은행의 IPO 추진을 통해 금융기관의 투명성을 높이고, 수익률 곡선 구축, 파생상품 도입, 증권시장법 개정 등 자본시장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한국 측에서는 한국 자본시장이 외환위기 이후 제도 정비와 시장 인프라 확충을 통해 크게 성장한 경험을 공유하며, 외국인 투자 확대와 글로벌 채권지수 편입 등 자본시장 국제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소개하였다. 또한 몽골 금융감독위원회는 ESG 공시 제도 도입, 광물거래소 설립, REITs 도입 등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 현황을 설명하였다.

핀테크와 디지털 금융 혁신

마지막 세션에서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금융서비스 혁신 사례가 소개되었다. 몽골 측에서는 블록체인 기반 장외거래(OTC) 시장 구축, 실시간 결제 인프라 도입 등 디지털 금융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추진 현황을 소개하였다. 한국 측에서는 금융결제 인프라와 민관 협력 기반의 핀테크 산업 발전 경험을 공유하고, 데이터 기반 금융서비스 확대와 디지털 금융 포용 정책 추진 사례를 설명하였다. 특히 오픈데이터, 레그테크(RegTech), 블록체인 기반 금융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가능성이 논의되었다.

이번 한-몽 금융협력포럼은 몽골 금융시장 발전 과정에서 필요한 정책 경험과 제도적 사례를 공유하고, 자본시장 발전, 금융 안전망 구축, 디지털 금융 혁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가능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양국 금융당국과 금융

금융 안정성과 금융 안전망 구축



이어서 두 번째 세션에서는 금융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정책과 제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주택저당증권(MBS), 주택연금 등 공공 주택금융 제도를 통해 주택금융 시장 안정과 서민 주거 안정을 지원해 온 사례를 소개하였다.

또한 신용보증기금은 보증제도가 경제 위기 시 중소기업 자금 공급을 지원하는 정책 금융 안전망 역할을 수행해 왔음을 설명하고, AI 기반 기업 진단 플랫폼과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혁신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확대하고 있는 정책 사례를 공유하였다. 몽골 중앙은행은 금융안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아직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을 설명하며, 금융 안전망 구축과 감독 체계 정비 과정에서 한국의 정책 경험이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기관 간 정책 교류와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향후 금융 인프라 협력과 공동 사업 발굴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04 해외공무원·금융관계자 장기 초청연수

해외금융협력협의회는 2025년 9월 22일(월)부터 26일(금)까지 「2025년 해외공무원·금융관계자 초청연수」를 개최하여 한국 금융산업의 발전 경험과 정책 노하우를 공유하고 금융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였다. 이번 연수에는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등 5개국 정부 부처 및 공공금융기관 소속 중견 관리자 등이 참여하였다. 또한 아시아개발은행(ADB)과의 협력을 통해 연수 참가자를 추가로 초청함으로써 총 18명의 연수단을 구성하였으며, 이를 통해 연수 참여 국가와 기관의 범위를 더욱 확대할 수 있었다.

이번 초청연수는 한국 금융산업이 지난 수십 년간 축적해 온 제도와 정책 경험을 신흥국 관계자들과 공유하고, 상호 학습과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참가자들은 ▲한국 금융산업 발전 과정 ▲국채시장 제도의 성과와 발전 경험 ▲디지털 금융정책과 금융 인프라 현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강의를 수강하며 한국 금융시스템의 구조와 정책적 특징을 이해할 수 있었다. 또한 업권별 심화 과정에서는 ▲보험 상품 개발과 규제 동향 ▲자본시장 발전 경험 ▲금융위기 대응 과정에서의 부실채권 정리 사례 등 한국 금융의 실제 정책 경험과 제도 운영 사례를 공유받았다. 특히 이번 연수에서는 Collaborative Learning(CL) 방식의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참가자들이 각국 상황에 맞춘 소규모 심화 토론을 진행하고 자국의 금융 현황과 과제를 공유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단순한 강의 중심 교육을 넘어 참가자들이 서로의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실제 금융정책 수립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교환하는 데 의미 있는 역할을 하였다.

일자	시간	일정	
9/22(월)	11:00-11:30	개회식 및 오리엔테이션	
	11:30-13:00	환영오찬	
	14:00-15:30	[공통] 한국의 금융산업 발전 경험 소개 한국금융연구원 이상제 박사	
	15:30-17:00	[공통] 한국의 국채시장 한국금융연구원 송민기 박사	
	17:00-17:30	CL 그룹 배정 및 리더 선정	
9/23(화)	10:00-11:30	[공통] 한국의 금융 인프라 및 디지털 금융 정책 현황 한국금융연구원 이정두 박사	
	14:00-15:30	[보험] 한국 주요 보험 상품 개발 및 동향 보험연구원 김석영 박사	[자본시장] 한국거래소 및 한국 자본시장의 발전경험 소개 한국거래소 김연진 차장
	15:30-17:00	[보험] 보험개발원 개요 및 기능 소개 보험개발원 여상유 선임	[자본시장] 금융투자협회 및 금융투자시장 소개 금융투자협회 고영준 과장
	17:00-17:30	CL 그룹 토론	CL 그룹 토론
9/24(수)	10:00-11:30	[기관방문] 한국거래소	
	14:00-15:30	Pacific Insurance Conference 2025 참석	[자본시장]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부실채권 정리 사례 한국자산관리공사 최선준 부장
	15:30-16:00		CL 그룹 토론
9/25(목)	10:00-11:30	[보험] 한국의 보험사기 방지 및 규제 동향 보험연구원 변혜원 박사	[기관방문] 한국자산관리공사
	12:00-17:00	문화탐방	
9/26(금)	10:00-14:00	금융협력세미나 및 수료식	



현장 중심 프로그램과 문화 교류

연수는 강의실 중심 교육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현장 프로그램을 통해 운영되었다. 참가자들은 한국거래소,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주요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운영 체계를 살펴보고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확인하였다.

또한 국제보험회의(Pacific Insurance Conference 2025)에 참석하여 글로벌 금융·보험 산업의 최신 동향을 접할 수 있는 기회도 가졌다. 아울러 참가자들은 한국의 역사와 전통문화를 체험하며 상호 이해와 교류의 폭을 넓힐 수 있었으며, 이는 금융 협력뿐 아니라 참가국 간 우호 관계를 강화하는 데에도 의미 있는 계기가 되었다.



한-아세안 금융협력세미나로 마무리



연수 마지막 일정으로 명동 로얄호텔에서 금융협력세미나가 개최되었으며, 국내 금융 전문가와 참가국 금융당국자들이 함께 참여하여 금융정책 경험과 시장 발전 방향을 공유하였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한국 금융산업의 발전 경험과 정책 사례가 소개되었다. 한국금융연구원과 자본시장연구원 전문가들은 ESG와 보험산업 발전, 자본시장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책

노력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밸류업 프로그램' 추진 등 한국 금융정책 사례를 설명하였다. 이어진 세션에서는 참가국 금융당국자들이 자국 금융시장 현황과 정책 과제를 발표하였다. 베트남은 보험시장 확대 정책과 장기 성장 목표를 소개하였으며, 키르기스스탄은 자본시장 구조개혁 추진 과정에서의 제도적 과제를 공유하였다. 또한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은 자본시장 제도 개선, 디지털 자산 규제, 부실채권 관리 등 금융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 현황을 설명하였다.

이번 연수 프로그램은 한국 금융산업의 정책 경험과 금융 인프라 구축 사례를 공유하고 아시아 국가 금융당국과의 정책 교류를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참가국 금융당국 관계자들이 자국 금융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협력 가능성을 모색함으로써 향후 금융협력 확대와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 진출 기반을 강화하는 의미 있는 프로그램으로 평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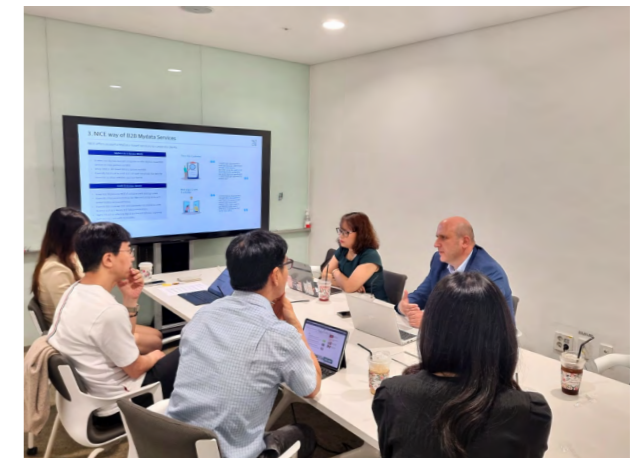
05 ViPP 2기 (Visiting Professionals Program)

해외금융협력협의회는 협력국 금융당국 및 파트너 기관과의 정책 교류를 확대하고 국제 공동연구를 추진하기 위해 Visiting Professionals Program(ViPP) 2기를 운영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2024년에 신설된 국제 협력 프로그램으로 해외 금융당국 및 공공금융기관 관계자들이 한국의 금융정책과 제도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공동 연구를 수행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협력국 금융당국과의 정책 교류를 강화하고 한국 금융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한편, 중장기적인 금융협력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ViPP 2기는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을 위해 해금협 협력국 및 파트너 기관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안내와 지원 신청서를 배포(2.18~3.15)하였다. 지원자는 ▲금융안정 위험 요인 연구 ▲디지털 혁신과 금융소비자 보호 ▲보험 산업 리스크 관리 및 개선 ▲기후 금융 확대와 지속가능성 등 네 가지 연구 주제 가운데 희망 분야를 선택하여 연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지원 마감 결과 라오스, 인도네시아, 몽골 등 총 7개국에서 17명이 지원하였으며, 이후 서류심사와 온라인 면접을 통해 연구계획의 적합성, 정책 연구 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종 참가자를 선발하였다. 그 결과 조지아 중앙은행과 베트남 신용정보원에서 각각 1명이 선정되어 ViPP 2기에 참여하게 되었다.

온라인·오프라인 연계형 연구 과정

ViPP 2기의 연구 주제는 '마이데이터(MyData) 정책'으로 설정되었다. 본 연구는 한국, 베트남, 조지아 3개국의 마이데이터 정책 추진 현황과 제도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비교·분석함으로써 정책적 시사점과 향후 발전 방향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참가자들은 5월부터 약 8주간 온라인과 오프라인 프로그램을 병행하며 국내 연구자와 협력하여 공동 연구를 수행하였다. 프로그램에는 한국금융연구원 이상제 명예연구위원이 자문으로 참여하였으며 한국신용정보원이 연구 협력 기관으로 참여하여 마이데이터 제도의 실제 운영 경험과 정책 추진 과정에 대한 실무적 자문을 제공하였다. 온라인 과정에서는 마이데이터 제도의 정책 배경과 제도 구조, 개인정보 보호와 금융 규제 체계, 데이터 기반 금융서비스 등 관련 정책과 제도에 대한 강의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특히 한국의 마이데이터 정책 구조와 주요 참여 기관의 역할, 데이터 소유자와 데이터 활용 기업 간 관계, 데이터 중계기관의 기능 등 제도 운영 사례가 소개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참가자들은 각국 금융환경과 제도적 특성을 반영한 비교 연구를 진행하였다. 프로그램 후반부에는 참가자들이 한국을 방문하여 한국금융연구원에서 대면 연구 회의를 진행하고 연구 진행 상황을 공유하며 상호 피드백을 교환하였다. 또한 한국신용정보원 외에도 코리아크레딧뷰로, NICE평가정보, 금융결제원 등 해금협 회원기관 현장연수를 통해 한국 금융시스템과 데이터 기반 금융서비스 운영 사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금융기관 간 협력 가능성을 논의하는 교류의 시간도 마련되었다. 이러한 활동으로 참가자들은 한국의 디지털 금융정책과 데이터 활용 금융서비스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각국 정책 환경에 적용 가능한 정책 아이디어를 모색하였다.



마이데이터 정책 공동연구 결과 보고서 발간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수행된 공동연구의 주요 성과는 한국금융연구원 기타보고서로 발간되었다. 해당 보고서에는 한국-베트남-조지아 3개국의 마이데이터 정책 동향과 제도 운영 경험을 비교·분석한 연구 결과와 함께 데이터 기반 금융서비스 발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었다. 또한 연구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정책 과제와 제도 개선 방향을 종합하여 향후 디지털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제언과 국제 협력 방안도 함께 제시하였다. ViPP 2기는 국제 공동연구와 정책 교류를 통해 협력국 금융당국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한국 금융정책 경험을 공유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특히 데이터 기반 금융정책과 디지털 금융 분야에서의 국제 협력 가능성을 확대하는 의미 있는 프로그램으로 평가된다.

06 ViPP 3기 (Visiting Professionals Program)

해외금융협력협의회는 협력국 금융당국과의 정책 교류를 확대하고 국제 공동연구를 추진하기 위해 Visiting Professionals Program(ViPP) 3기를 운영하였다. ViPP 3기는 캄보디아 중앙은행(National Bank of Cambodia, NBC)과 협력하여 추진되었으며, NBC 소속 관계자 2명을 초청하여 부실채권 관리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주제로 각각 공동연구를 수행하였다. 프로그램은 온라인 4주(10월 13일~11월 7일)와 오프라인 5주(11월 10일~12월 12일)로 구성되어 약 9주간 운영되었다.



이번 공동연구는 가계부채 및 부실채권 관리와 건전한 대출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주요 연구 주제로 설정하고, 양국 금융 시스템의 정책 경험을 비교·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었다.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와는 가계부채 관리 및 부실채권 정리 제도와 관련된 정책 경험을 중심으로 공동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신용회복위원회와는 채무조정 제도와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을 중심으로 건전한 대출 관행과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한국의 부실채권 관리 체계와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에 대한 실무 경험이 공유되었으며, 캄보디아 금융환경에 적용 가능한 정책적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캄보디아 중앙은행의 Sreyleak MON은 신용회복위원회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캄보디아의 채무조정 체계 강화를 통한 금융 소비자 보호 및 금융안정성 제고 방안을 국제 사례 비교를 통해 제시하였다. 또한 Sopheawattay SAN은 한국자산관리공사와의 연구에서 캄보디아의 부실채권(NPL) 현황을 한국의 제도와 비교 분석하여 공공 자산관리회사(AMC) 도입 필요성을 검토하고, 감독체계 강화와 NPL 시장 육성 등 중장기적 정책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한국자산관리공사, 금융결제원, 유암코(연합자산관리), 신용회복위원회 등 주요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부실채권 관리 제도, 채무조정 프로그램, 금융 인프라 운영 체계 등 한국 금융시스템의 실제 운영 사례를 살펴보는 기회를 가졌다. 이러한 기관 방문은 연구 주제와 연계된 제도 운영 경험을 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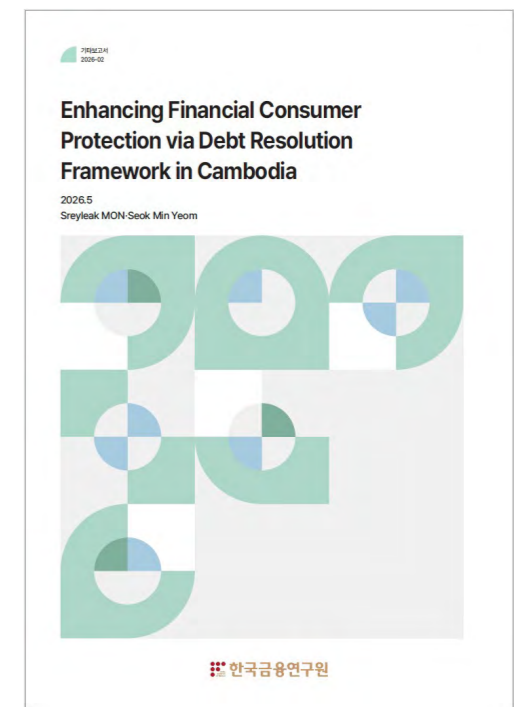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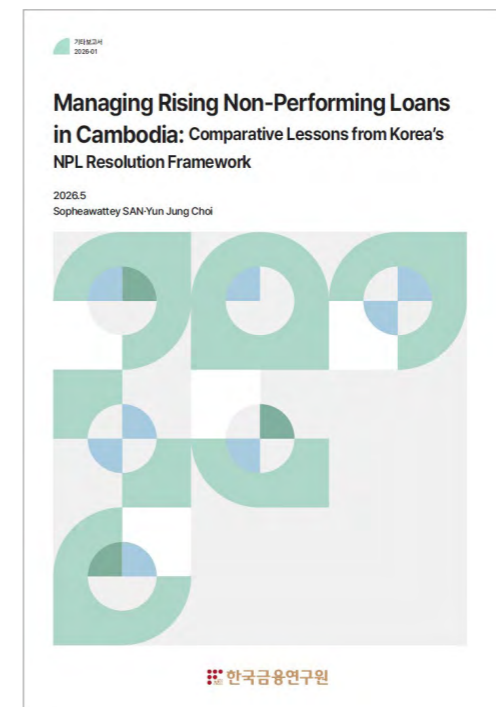
접 확인하고 정책적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을 주었다. 또한 참가자들은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지식공유세미나 및 부산에서 개최된 국제금융협력포럼에도 참석하여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와 금융협력 사례에 대한 논의를 접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ViPP 공동연구 프로그램이 해금협의 다른 금융협력 사업과 연계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고, 협력국 금융당국과의 정책 교류 및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특히 ViPP 3기에서는 최종 연구보고서에 대한 심사 절차가 새롭게 도입되었다는 점이 특징이다. 공동연구를 통해 작성된 보고서는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진을 중심으로 한 내부 심사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외부 심사를 거쳐 연구의 정책적 타당성과 학술적 완성도를 평가받도록 하였다. 이러한 절차는 공동연구 결과의 신뢰성과 연구 품질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프로그램의 전문성과 정책 연구 기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참가자들은 주차별 연구 계획에 따라 공동연구를 수행하



고 정기적인 연구 회의와 토론을 통해 연구 결과를 발전시켰다. 그 결과 최종 연구보고서는 심사 과정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발간되었으며, 한국과 캄보디아 금융당국 간 정책 교류 성과를 정리한 의미 있는 연구 결과로 평가되었다.

이번 ViPP 3기를 통해 향후 양국 금융당국 간 정책 협력과 금융협력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ViPP 3기는 협력국 금융당국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정책 교류와 연구 협력을 확대하고 한국 금융정책 경험을 공유하는 한편, 향후 금융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기반을 마련한 프로그램으로 평가될 것이다.



07 CIFC-LFF 지식공유세미나



해외금융협력협의회는 룩셈부르크와 디지털 금융 혁신 및 핀테크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양국 간 금융협력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룩셈부르크 재무부 산하 금융진흥청인 Luxembourg for Finance(LFF)와 공동으로 지식공유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5」 기간 중 미니 세미나 형태로 진행되었으며, 룩셈부르크의 금융허브 전략과 핀테크 발전 경험을 소개하고 한국의 AI 기반 금융 혁신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세미나는 2025년 11월 28일 양재 aT센터에서 개최되었으며, 룩셈부르크 재무부 및 금융기관 관계자, LFF 관계자, 해금협 회원기관 담당자 등이 참석하였다. “Digital Transformation and AI in Finance across Luxembourg and Korea”를 주제로 디지털 전환과 AI 기술 활용에 대한 정책 및 산업 동향이 논의되었다.

세부 발표에서는 룩셈부르크 재무부가 유럽 핀테크 규제 동향을 소개하고, KCB는 AI 기반 신용분석 사례를 발표하였다. 또한 LFF는 AI-블록체인 기반 핀테크 산업 발전 사례를 공유하였으며, 기술보증기금은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체계 구축 경험을 설명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양국 금융정책과 산업 경험을 공유하고 디지털 금융 분야 협력 가능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2026년에는 룩셈부르크 현지에서 지식공유세미나 및 EIB·EIF 등과의 협력사업으로 확대해 나가는 중이다.

해외금융협력협의회 연구용역

금융공공기관 정책금융 패키지 수출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

최근 신흥국을 중심으로 자국 중심의 산업정책이 강화되고 금융협력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패키지 방식의 통합 금융서비스 모델을 활용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구본성, 이대기 선임 연구위원

연구에서는 정책금융 패키지를 금융기술, 제도, 금융 인프라 구축, 인력 양성 등 다양한 요소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종합 금융서비스 모델로 정의하고, 단독 금융사업 방식과 비교하여 패키지 방식의 전략적 장점을 분석하였다. 특히 정책금융기관 간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으며, 수원국의 복합적인 금융 수요에 대응하고 장기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데 효과적인 모델로 평가된다. 또한 최근 국제 금융협력에서는 공공기관, 민간 금융기관, 국제기구가 함께 참여하는 혼합형 금융협력 모델(blended finance)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도 함께 분석하였다. 또한 금융 IT, 자본시장 인프라 구축, 금융안정 정책, 중소기업 금융, 주택금융 등 분야별 특화 패키지를 구성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되었다.

연구 결과 정책금융 패키지 수출 활성화를 위해 정책금융기관 간 협력을 위한 전담 협의체 구축과 연구-조사 협력 체계 강화가 필요하며, 정부의 해외 금융협력 정책과 연계된 중장기 금융수출 전략 마련이 중요하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중유럽 지역 금융시장 및 금융환경 심층조사



한국금융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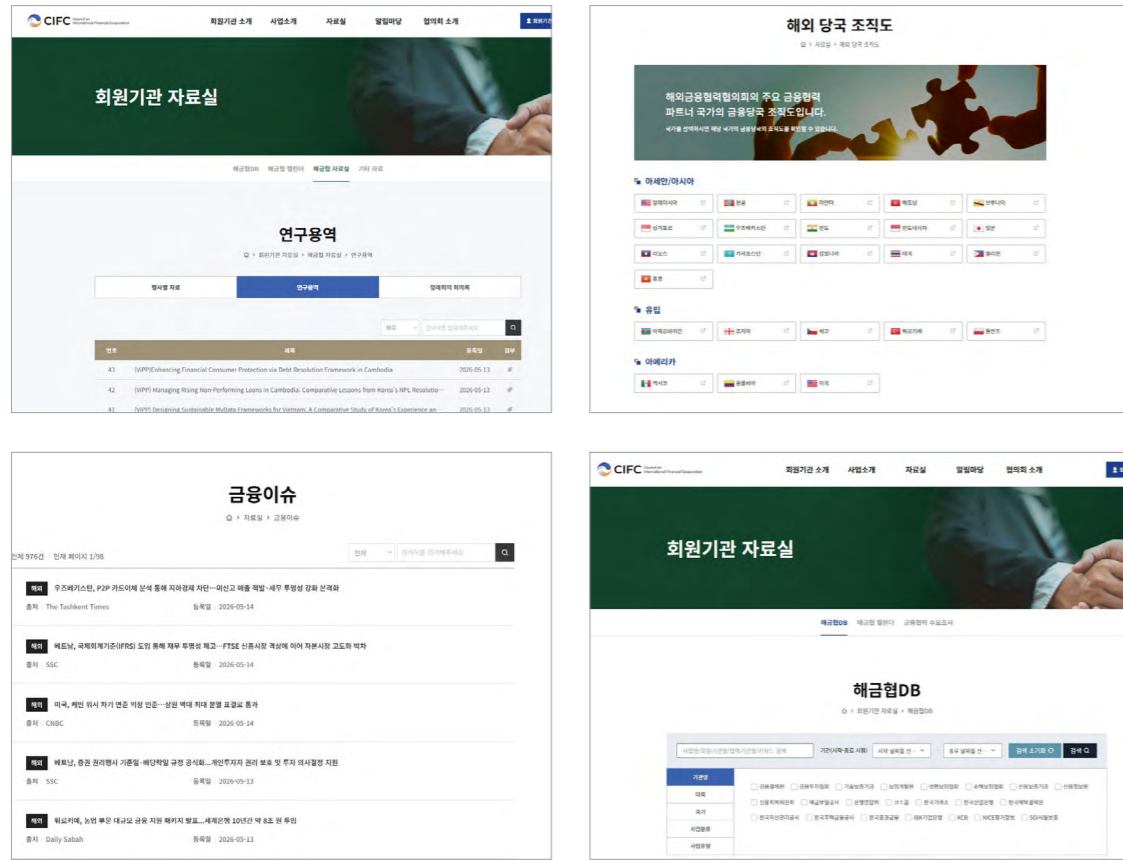
중유럽은 유럽연합(EU) 시장 접근성과 제조업 기반을 바탕으로 성장 잠재력이 높은 지역으로 외국계 금융기관의 시장 지배력이 높은 구조를 보이고 있으며, 국가별 금융환경과 규제 체계에도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형준, 서병호 선임연구위원

폴란드는 중유럽 최대 경제 규모와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EU 기준을 상회하는 금융 감독 및 인허가 규제가 존재하며, 헝가리는 제조업 및 이차전지 산업 중심의 투자 매력과 낮은 법인세율이 강점이지만 정책적 불확실성이 부담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체코는 경제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이 높은 국가로 평가되지만 기존 외국계 금융기관의 높은 시장 지배력으로 신규 금융기관의 진입 여지가 제한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환경을 고려할 때 국내 금융회사는 단기적으로 EU 내 기존 해외법인을 활용한 영업 확대 전략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 현지 법인 설립이나 인수 등을 통한 직접 진출 전략을 선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였다. 또한 2027년부터 시행 예정인 CRD VI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준비와 전략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연구에서는 EU 금융 규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내부등급법 인정 확대, 금융당국 간 협력 강화, 금융기관별 거점 전략 차별화, 기업 대상 관계금융 강화 등 정책적 지원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도 제시하였다.

정보관리사업



해외금융협력협회의 회원기관의 해외 진출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글로벌 정보관리체계 및 홈페이지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였다. 본 사업은 해외 금융시장 뉴스, 국제기구 보고서, 주요국 규제 동향 등 산재한 글로벌 금융 데이터를 한곳에 모아 제작 및 배포함으로써 회원기관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의사결정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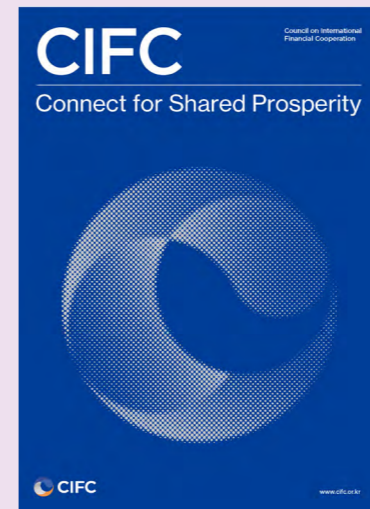
우선, 해금협 및 회원기관의 주요 사업 일정과 IMF, WB 등 국제기구 주관 핵심 행사를 종합한 '통합 금융 캘린더'를 구축하여 회원기관 간 행사 중복을 방지하고, 공동 대응 및 협업 기회를 발굴할 수 있는 전략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와 함께 그동안의 해외사업 현황을 통합 DB화하여 회원기관 간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글로벌 금융정책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다.

정보 콘텐츠 측면에서는 매일 주요 글로벌 금융 이슈를 2~4건 엄선·요약하여 최신 동향 파악의 편의성을 높였으며, 주요 협력국의 금융 규제 및 정책 변화를 선제적으로 공유하여 회원기관의 리스크 관리 및 현지 대응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IMF, WB, ADB 등 주요 국제기구 발간물을 국문 요약본으로 제공하여 핵심 인사이트 추출을 지원하는 한편, 국제기구 발주 사업 입찰 공고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여 회원기관이 실질적인 사업 기회를 포착하고 해외 수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였습니다.

정보관리 고도화를 위한 홈페이지 개편 결과, 해외보고서(월평균 190회) 및 입찰정보(월평균 180회) 게시판을 중심으로 회원기관의 활발한 이용이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전문 분석 자료와 실무 사업 정보에 대한 높은 수요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해금협은 앞으로도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보의 질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고, 회원기관 간 정보 공유 네트워크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갈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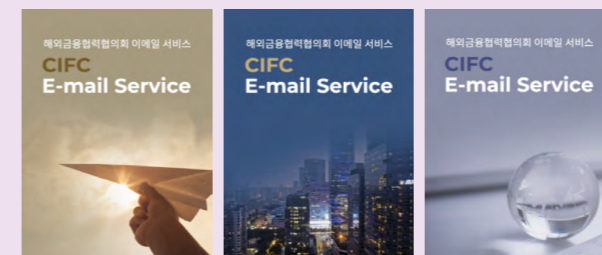
CIFIC 간행물 및 홍보자료 발간

Connect for Shared Prosperity (회원기관 해외사업 홍보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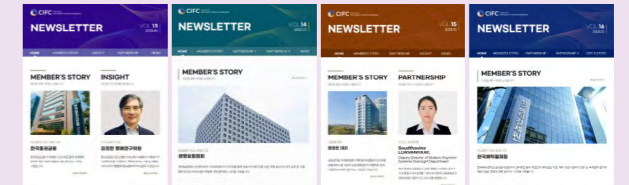
해외금융협력협회의 국제기구 및 해외 협력국과의 네트워크를 심화할 수 있는 고도화된 홍보 수단인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기존의 조직 안내 중심 브로슈어에서 구체적인 사업 모델과 성공 사례를 담은 영문 콘텐츠를 제작하여 회원기관의 실질적인 해외 사업 성과와 역량을 집약적으로 보여주고자 하였다. 본 홍보집은 각각의 회원기관별 핵심 역량, 해외 진출 모델, 주요 프로젝트 연혁 등을 체계적으로 수록하여 한국 금융 인프라의 우수성을 직관적으로 전달하고 해외 독자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홍보집은 국제기구와의 간담회, 국제금융협력포럼 등 주요 네트워킹 행사 시 실질적인 협력 제안 자료로 활용하며, 한국 금융 인프라 수출을 위한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CIFIC 이메일 서비스



해외금융협력협회의 해외 진출 및 금융 관련 최신 정보와 국제기구 보고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메일 서비스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다. 본 서비스는 기존 격월 발간에서 2025년부터 격주 발간으로 확대 편성하고 매호 글로벌 이슈와 국가별 제도 현황, 협력국의 정책 동향, 주요 기관 보고서 등 다양한 정보를 담아 국내외 유관기관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CIFIC 뉴스레터



해외금융협력협회의 회원기관 및 파트너기관 소식 등을 공유하기 위해 뉴스레터를 제작하여 4차례(분기) 배포하였다.

뉴스레터 13호에서는 한국증권금융의 국제협력 및 해외사업 목표를 인터뷰하고, 김정환 박사의 기고를 통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글로벌 사우스 개발협력의 중요성을 짚어보았다. 또한 금융감독원 금융중심지 지원센터의 운영 프로그램과 향후 정책 방향을 살펴보고, 2010년 이후 해금협 회원사들이 추진해 온 주요 글로벌 인프라 사업 및 활동 성과를 심층 분석하였다.

뉴스레터 14호에서는 생명보험협회 국제업무팀 인터뷰를 통해 생보사의 해외 진출 지원 현황과 국제 협력 비전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이어 ViPP 2기 참여자인 조지아와 베트남 전문가의 기고를 통해 각국의 경제 및 금융 산업 현황을 소개하였고, 해금협 소식에서는 지난 6월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된 「한-몽골 금융협력포럼」의 생생한 성과와 소식을 함께 수록하였다.

뉴스레터 15호에는 금융결제원 해외협력사업팀 인터뷰를 통해 고유의 차별화된 협력 모델과 해외 사업 개요를 집중 조명하였다. 이어 라오스 중앙은행 전문가의 기고를 통해 라오스에 디지털 경제 도약을 위한 모바일 및 QR 결제 기반의 금융 포용성 전략을 살펴보고, 국제금융센터 백진규 부전문위원의 제언을 통해 미 고을 관세 정책에 대응한 ASEAN 국가들의 역내 공조 필요성을 짚어보았다. 아울러 해금협 소식에는 베트남 등 5개국 금융관계자를 초청하여 한국의 금융 발전 경험을 공유한 해금협의 「초청 연수」 성과를 함께 수록하였다.

뉴스레터 16호는 한국예탁결제원 글로벌사업팀 인터뷰를 통해 예결원의 해외 진출 지원 전략과 국제협력 업무의 핵심 목표를 심도 있게 다뤘다. 또한 ViPP 3기에 참여한 캄보디아 중앙은행 전문가들이 자국의 금융산업 현황을 직접 소개하는 내용을 수록하였으며, 해금협 소식에서는 한 해를 마무리하며 공동연구·포럼·연수 등 다각적인 사업을 통해 회원기관의 글로벌 행보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해 온 해금협의 2025년 주요 성과와 발자취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CIFC 정례회의



1 월 정례회의

일시	2025년 1월 10일(금) 14:00~15:00
장소	한국금융연구원 8층 대회의실
안건	2024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보고서, 2025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 2025년도 연회비 납부대상 및 금액, 2025년 해금협 운영규정 개정, 신입감사 및 총괄간사 임명 등 의결

2 월 정례회의 및 2025년도 워크숍

일시	2025년 2월 6일(금) - 7일(금)
장소	강원도 정선
안건	해외사업 역량강화 워크숍, Visiting Professionals Programs(ViPP), 회원기관 해외사업 홍보집 발간 기획(안), 한-아세안 금융협력포럼, 한-몽골 금융협력포럼, 해금협 발전방안 논의결과 발표 등 해금협 주요사업 논의

3 월 정례회의

일시	2025년 3월 21일(금) 14:00~15:00
장소	한국금융연구원 8층 대회의실
안건	한-아세안 금융협력포럼, Visiting Professionals Programs(ViPP), 정보공유를 통한 해금협-SCFI 협력체계 강화방안, 해금협 영문 뉴스레터 등 해금협 주요사업 논의

5 월 정례회의

일시	2025년 5월 16일(금) 14:00~15:00
장소	한국금융연구원 8층 대회의실
안건	한-몽골 금융협력포럼, Visiting Professionals Programs(ViPP) 개최, 2025년도 해금협 연구용역 추진안, 한-아세안 금융협력포럼 성과평가 설문조사 결과, 「금융회사 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개정 수요조사 결과 등 해금협 주요사업 논의

7 월 정례회의

일시	2025년 7월 16일(수) 14:00~15:00
장소	한국금융연구원 8층 대회의실
안건	Visiting Professionals Programs(ViPP), 2025년도 해금협 연구용역 추진안, 해외공무원·금융관계자 초청연수, 제10회 국제금융협력포럼, 해금협 정보관리사업 결과 보고, 한-몽골 금융협력포럼 성과평가 설문조사 결과 등 해금협 주요사업 논의

8 월 정례회의

일시	2025년 8월 22일(금) 14:00 ~ 15:00
장소	한국금융연구원 8층 대회의실
안건	2025년도 하반기 현지금융협력포럼 개최 후보국 검토안, 해외공무원·금융관계자 초청연수, 제10회 국제금융협력포럼 등 해금협 주요사업 논의

9 월 정례회의

일시	2025년 9월 18일(목) 14:00~15:00
장소	한국금융연구원 8층 대회의실
안건	현지금융협력포럼 개최 희망국 수요조사 결과, 해외공무원·금융관계자 초청연수, 제10회 국제금융협력포럼, Visiting Professionals Program (ViPP) 3기 개최안, 정보공유 통한 해금협-SCFI 협력체계 강화방안 등 해금협 주요사업 논의

10 월 정례회의

일시	2025년 10월 28일(화) 15:00~16:00
장소	한국금융연구원 8층 대회의실
안건	제10회 국제금융협력포럼, 지식공유세미나(LFF, AMRO), 해외공무원·금융관계자 초청연수 결과 보고, 2026 현지금융협력포럼 추진 계획 등 해금협 주요사업 논의

11 월 정례회의

일시	2025년 11월 25일(화) 14:00~15:00
장소	한국금융연구원 8층 대회의실
안건	제10회 국제금융협력포럼 추진현황, LFF-CIFC 지식공유세미나, 2026년도 사업 수요조사 결과 공유, 2026년도 연수사업 추진방안 공유 등 해금협 주요사업 논의

12 월 정례회의 및 송년회

일시	2025년 12월 22일(월) 18:00
장소	서울시 중구 을지로
안건	2025년도 사업결과 보고, 2026년도 사업계획(안) 보고 등 해금협 주요사업 논의

회원기관 협력사업 지원

1 | 베트남 CIC 고위급 임원(C-level) 초청 및 금융·데이터 발전 세미나

일자	2025년 5월 26일(월) ~ 29일(목)
참여기관	신용정보원, NICE평가정보
주요내용	베트남 국가신용정보센터(CIC) 초청하여 세미나 개최, 참여기관 방문, 문화탐방 등을 진행하여 협력 강화

2 | Pacific Insurance Conference 2025

일자	2025년 9월 23일(화) ~ 25일(목)
참여기관	생명보험협회(주관), 손해보험협회(협력)
주요내용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보험산업 최고위 관계자가 모여 보험산업의 경영 현안과 미래전략에 대해 논의하고 협력방안을 모색

3 | 중국증권금융(CSF) 증권대차중개 업무면담

일자	2025년 9월 25일(월) ~ 10월 1일(수)
참여기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주요내용	양 기관의 주요 비즈니스 현안 공유, 증권대차중개 업무 소개 및 현황 설명, 질의응답 및 토의 진행

4 | 몽골 자산관리회사 및 예금보험공사 공동 초청연수

일자	2025년 11월 4일(화) ~ 5일(수)
참여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예금보험공사
주요내용	몽골자산관리회사(MAMCO) 및 몽골예금보험공사(DICoM)를 초청하여 주관기관 방문, 온비드 시스템 및 예금자 보호제도 소개 등 진행

5 | 인도네시아 청산보증기관(KPEI) 방문연수

일자	2025년 12월 2일(화) ~ 5일(금)
참여기관	한국예탁결제원(주관), 한국거래소(협조), 한국증권금융(협조)
주요내용	주요업무(청산결제·증권대차·담보·Repo중개 등) 프로세스, 핵심시스템·인프라 등 IT 구조 및 IT 보안 대책 등 소개

6 | 인도네시아 OJK 고위급 임원(C-level) 초청 세미나

일자	2025년 12월 10일(수)
참여기관	한국신용정보원, KCB
주요내용	주요업무(청산결제·증권대차·담보·Repo중개 등) 프로세스, 핵심시스템·인프라 등 IT 구조 및 IT 보안 대책 등 소개

발행일	2026년 5월 30일
발행처	해외금융협력협의회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11길 19 은행회관 8층
전화	02-3705-6307
팩스	02-3705-6288
홈페이지	www.cifc.or.kr

이 책에 실린 모든 내용, 디자인, 이미지, 편집 구성의 저작권은 해외금융협력협의회에게 있습니다. 허락없이 복제하거나 다른 매체에 옮겨 실을 수 없습니다.

